“베토벤 ‘황제’ 광주시향과 꼭 연주하고 싶었다”

임윤찬, 광주시향과 앨범 발매
도이치그라모폰…1만장 판매
“단원들 에너지 대단…마음에 남아”
윤이상 ‘광주여 영원히’ 등도 수록

‘반 클라이번 최연소 우승자’ 피아니스트 임윤찬(오른쪽)과 광주시향 지휘자 홍석원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베토벤, 윤이상, 바버’ 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생각하는 음악가로서의 대단한 업적은 음악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직접 가서 연주하고 음악을 나누는 것이에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우주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8일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베토벤, 윤이상, 바버’ 앨범을 발매한 피아니스트 임윤찬(18)은 이날 서울 금호아트홀연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제’를 들으며 베토벤이 꿈꾼 유토피아와 그가 바라본 우주를 느꼈다”며 “이 곡을 꼭 광주시향과 함께 연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베토벤 협주곡 중 ‘황제’는 너무 화려하게만 느껴져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인류에게 코로나라는 큰 시련이 닥치고 저도 매일 방에서 연습하다 보니 베토벤이 꿈꾼 유토피아와 우주가 느껴지며 인식이 달라졌어요.”

지난 10월 8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공연의 연주 실황을 녹음한 이번 앨범에는 임윤찬과 광주시향이 협연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광주시향이 연주한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임윤찬이 앙코르로 연주한 몸포우의 ‘정원의 소녀들’, 스크랴빈 ‘2개의 시곡’ 중 1번, ‘음악 수첩’ 등이 담겼다.

도이치그라모폰에서 발매된 이번 음반은 예약판매만으로 이미 1만장이 넘게 판매됐다.

이번 앨범은 윤이상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해 작곡한 ‘광주여 영원히’를 광주시향이 공식적으로 녹음한 최초의 앨범이기도 하다. 광주시향 홍석원 상임지휘자는 “취임 후 광주시향이 연주한 ‘광주여 영원히’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앨범을 기획하게 됐다”고 했다.

“함께 담긴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역시 추모의 의미를 담아 연주했습니다. 임윤찬 군과 함께한 ‘황제’ 협주곡에 담긴 베토벤의 영혼과 윤이상 정신이 잘 맞아떨어지며 조화를 이룬 앨범이지요.”

임윤찬은 지난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 연주로 광주시향과 인연을 맺었다.

홍석원 지휘자는 “누구와 협연할지 고민하던 중 윤찬 군을 만났고 곧장 반해버렸다”며 “무조건 같이 앨범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제안했고 함께하는 영광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다시 만난 윤찬 군은 작년의 힘 있는 라흐마니노프 연주와 달리 슬픔이 느껴지는 색다른 ‘황제’를 들려줬다. 다양한 색채를 가진 피아니스트이고 천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극찬했다.

임윤찬은 “작년 광주시향 단원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연주하는 걸 보고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라흐마니노프가 가장 좋아했던 오케스트라로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가 있었던 것처럼 제 마음에는 광주시향이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화답했다.

반 클라이번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콩쿠르 우승으로 인한 관심은 3개월짜리고, 그리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임윤찬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몸이 불편해 연주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나 보육원, 호스피스 병동 등에 직접 찾아가 연주하는 것이 음악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승인 손민수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연주자로서 대단한 업적이란 어떤 콩쿠르에 나가 운 좋게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해 연주하는 것이고,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임윤찬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손민수 한예종 교수가 뉴잉글랜드음악원 교수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윤찬의 해외 유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윤찬은 “사실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거나 다쳐서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불리 계획을 얘기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윤찬은 12월 3일 도쿄 산토리홀에서 일본 데뷔 리사이틀을 가진 뒤 6일과 8일 각각 통영국제음악당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10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팬들을 만난다. /연합뉴스

시립극단 창작 희곡, 정범종 작가 ‘섬 옆의 섬’

성악가 윤심덕·극작가 김우진 현해탄 투신사건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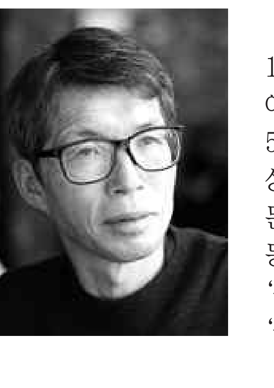
광주시립극단 제2회 창작 희곡 공모에 정범종 작가의 ‘섬 옆의 섬’이 선정됐다.

지역 소재 이야기를 발굴해 시립극단 레퍼토리 공연으로 제작하기 위해 마련된 창작 희곡 공모는 지난 6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접수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총 15작품이 응모했고 약 한달간의 심사를 거쳤다.

‘섬 옆의 섬’은 목포 출신 극작가 김우진과 ‘사의 찬미’ 성악가 윤심덕의 현해탄 투신 에피소드를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이를 질문으로 삼으며 동시에 다도해 주민들이 지금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며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을 적확하고 타당한 인물 구성, 현실감 있고 유니크한 성격(캐릭터)들, 절제된 대사와 적절한 반전으로 문학성과 연극성을 획득했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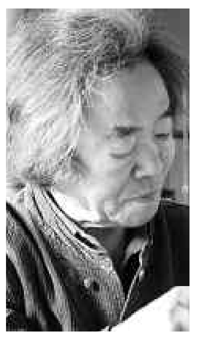
한편 정범종 작가는 198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희곡 ‘새연’으로 등단, 5.18 기념재단 희곡 우수상, 제주4.3 평화문학상,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봄날의 새연’, ‘칼과 학’, ‘큰일 한 생쥐’ 등이 있다.

당선작 ‘섬 옆의 섬’은 2023년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정인순 한복장·김생수 소목장·선영숙 명창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


김생수

정인순

선영숙

제4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사)대동문화재단·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문화유산부문 대상에 정인순 한복장, 미술부문 대상에 김생수 소목장, 공연부문 대상에 선영숙 명창 등을 선정·발표했다. 부문별 상금 500만원.

정인순 한복장은 1970년대 한복을 시작해 대한민국명장 638호로 지정됐으며 제4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입상, 철탑산업훈장 등 한복 문화 및 기술보급에 이바지해 왔다.

1978년부터 약 40년 동안 전통 소목기술 전승활동을 펼쳐온 김생수 소목장은 담양군 향토무형문화유산 제3호 소목장으로 광주시립민속박물관·원광대박물관 전통목가구 복원에 참여했다. 현재 전남공예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중이다.

선영숙 명창은 1969년 임동선을 사사한 후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이후 (사)화순연정 국악연수원 창립, 한국예총 화순군지부 초대 회장과 국악인협회 화순지부장, 호남연정국악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후학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별상 한우물상(상금 200만원)에는 고경주(금속공예가), 김진숙(미용장), 김해진(한국무용), 박현순(유물보관), 황연수(판소리 명창) 등이 선정됐고,특별상 미래인재상(상금 100만원) 부문은 김철환(대금연주), 신선민 (대금연주), 이두리(국악 창작), 임재현(가야금병창), 함승우(판소리) 등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2019년 제정된 대동전통문화대상은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자기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전통문화 장인과 예인들의 고귀한 활동을 시민들이 함께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언제나 즐기는 메타버스 어린이체험관

메타버스 어린이 체험관의 ‘필리핀 계단식 논 공간’ 이미지. 〈ACC재단 제공〉

ACC 어린이문화원

ACC 어린이문화원의 메타버스 체험관을 시공간 제약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됐다.

메타버스 어린이 체험관을 미리 경험해보는 실증행사가 지난 27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체험단이 참여해 시범 개발 중인 메타버스 어린이 체험관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위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어린이체험관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체험이 가능하기에 메타버스 체험관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메타버스 어린이체험관은 2개의 체험 콘텐츠로 모두 하늘에 떠 있는 공간 위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인류의 첫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필리핀 계단식 논, 중앙아시아 유르트 등의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더 샌드박스(The Sandbox) 플랫폼에 구축된 가상체험공간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2 메타버스 XR 융합콘텐츠 제작 실증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